

정읍시 면직물 산업 활성화 힘 모은다

6월 패브릭아트협회 출범

관련업체 협업·지원 강화

아트페어 유치 정책 추진

정읍지역 직물관련 종사자와 업체 관계자들이 면직물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기투합하고 나서 주목된다.

16일 정읍시에 따르면 면직물 관련 기업과 시민들은 이날 함께 장립 준비 모임을 거쳐 6월 말 패브릭(면직물)아트협회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면직물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

특화산업 락·차·면·술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에 포함된 특화산업 중 하나다.

패브릭아트협회(이하 협회)는 입암면 대흥리 일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직공장과 관련 산업체와 지역의 소규모 공방 간 협업, 산업화 지원을 통해 일도심 등 기능이 쇠퇴한 도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구성된다.

특히 협회는 주민 주도로 구성·운영되며 패브릭과 아트, 공예와 직물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사업 활성화와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협회는 또 정읍시 패브릭 아트와 디자

인 전반에 걸친 산업화와 디자인 컨설팅, 창업 지원에 따른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함께 협회는 전국 단위 아트 페어 참여와 유치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도 나선다.

정읍시 관계자는 "협회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와 전문기관에서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정읍시 도시재생과(063-539-5803)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063-539-5815)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내장산 봄꽃잔치

16일 정읍시 내장산 단풍생태공원에 튜립과 형형색색의 팬지가 장관을 이뤘다. 정읍시는 봄을 맞아 시내 곳곳 화단과 소공원, 꽃박스에 다양한 봄꽃을 심었다. <정읍시 제공>

군산해경, 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어선 단속 강화

다음달 1일부터 시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

해경의 어선 위치발신장치에 대한 미작동·미수리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 안전수칙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어선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더 이상 기계를 고장이 났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시행을 앞둔 어선법 내용에는 어선 위치

발신장치(V-PASS, VHF-DSC, AIS)를 고장 또는 분실한 뒤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다.

또 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고 바다에 나가거나 분실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건조 이후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도록 해 안전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강화했다.

어선의 경우 어장위치와 조업금지구역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낚시어선의 경우 영업구역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고의로 위치발신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그동안 빈번했다.

박종목 군산해경서장은 "운항 중인 선박의 위치발신장치가 꺼지게 되면 해경은 해양사고로 추정하고 긴급하게 수색·구조 활동에 돌입하게 되는데 불법을 숨기려고 고의로 꺼둘 경우 막대한 경찰력 손실과 경비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강력단속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성기자 nogusu@kwangju.co.kr

GM공장 근로자에 심리검사·치료 지원

군산시 보건소 실시

요가·식품테라피 등

군산시 보건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심리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소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겪는 가족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보건소는 심리상담 접수와 전문상담사 가정방문을 통해 위기관리가 필요할 경우 정밀검진과 치료를 제공한다.

또 이런 내용을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문자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소통주민센터)도 감정정화를 위한 요가, 기공체조, 신체활동 프로그램, 식품테라피, 기초체력 검사를 진행한다.

전형태 군산시 보건소장은 "한국GM 군산공장 사태로 겪는 정신건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와 치료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심리상담과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63-445-9191.

/군산=박기성기자 nogusu@



서훈 취소 김성수 '부안고택' 국가 민속문화재 자격 유지

지난 2월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된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어린 시절을 보낸 '부안 김상만 고택'의 국가민속문화재 자격이 유지됐다.

1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민속분과는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국가민속문화재 제150호 '부안 김상만 고택'의 문화재 지정 해제 안건을 검토해 부결했다.

앞서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인촌은 대법원에서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국공로훈장 복장(復章·지금의 대통령장)이 박탈되고 생가와 동상의 현충시설 해제가 결정됐다"며 "인촌 김성수와 관련된 고택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회는 "부안 김상만 고택은 거주 안불이 아니라 주거지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받아 문화재로 지정됐다"며 "문화재 지정 해제 요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가민속문화재는 의식주, 생산, 교

통, 교역 등에서 한국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를 나타내는 유물 중 전형적인 것이 지정된다.

이 집은 1895년 안채와 사랑채 등이 지어졌고, 1903년 안사랑채와 곳간채가 세워졌다. 문간채는 1984년에 증건됐으며,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ㄱ'자형이다. 기와집 못지않게 좋은 부재를 썼지만, 기와지붕이 아닌 초가지붕인 점이 특징이다. 1982년에 보수를 거치고 지붕의 이영이 역시로 변경됐으나, 고창 지방의 주거양식을 잘 나타내는 근대적 초가지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인촌은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고 모금운동을 벌여 고려대를 설립한 교육자이자 부통령을 지낸 정치인이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일제의 징병과 학병을 찬양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일 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등 항일운동가 단체들은 인촌 관련 기념물 철거와 후손들의 재산 환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부안=서충열기자 scy@연합뉴스

고창군, 가상현실 안전체험관 개관

고창에 가상현실(VR) 안전체험관이 조성됐다.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고창 삼인종합학숙(옛 삼인초)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가상현실 기반 안전체험관이 이날 개관했다.

이 안전체험관은 가상현실(VR) 재난 안전과 교통안전, 소방, 지진, 방사능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특히 실제 겪어보기 힘든 재난 상황을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가상현실로 표현, 재난을 체험하고 재난발생 시 대응 능력



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실습, 소화기 사용방법 등 교육도 이뤄진 다. /고창=박정진기자 pjh@

익산 제3일반산단, 강소기업 입주 줄이어

익산지역에 강소기업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익산시는 16일 무봉제(seamless)의 류 생산 기업인 (주)지앤지엔터프라이즈와 제3일반산단단지 분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지앤지엔터프라이즈는 이번 분양 계약을 통해 익산 제3일반산단 2만328㎡ 부지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 업체가 정상 가동될 경우 100여개의 신규 일자리에 창출된다.

업체는 2019년 상반기 공장 건립을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업체는 디자인, 원사 선정, 프로그램, 편직, 염색 등 일련의 일괄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향후 5년 내 연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공장 부지 내 공원, 휴식 공간 조성 등을 통해 편안한 근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섬유산업의 부흥을 선도함을 물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투자일정에 차질이 없게 공장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 · 전원주택지

- 신안군 입해도 북동리 1810㎡ 저수지임 5000만원
- 나주시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 3136㎡ 전원생활적합 5700만원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평주소 30분 내 6천만원

주택 · 원룸 · 아파트

- 전원주택 함평 해보면 대지 966㎡ 집 79㎡ 티마에서 차로5분 1억5500
- 월산동 소방도로점 2층 주택 전채공실 토지 150㎡ 1억7천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4500

투자 · 매도 · 교환

- 곡성군 죽곡면 선진강 압록부근 계획 관리지역 1439㎡ 판선 등 적합 1억2천2백 전원주택 적합 4751㎡ 1억6천 임야 10512㎡ 1억
- 수목장(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종용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쌍촌동 소방도 대지 118㎡ 상가주택 적합 1억6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앞 664㎡ 2층주택 사철적합 분할매도 가능 4억7천
- 나주 남평시내 상업지 2919㎡ 개발에적합 공사가 8억8천 매도39억
- 신안동 전대정문쪽 토지 160㎡ 주택 70㎡ 찻집등적합 1억7300
- 고흥 나로도부근 판선 땅 9891㎡ 건평 267㎡ 객실 10개 7억6천
- 양동시정전너 재개발지역 대로변 대지 217㎡ 주택 3억2천
- 금남로5가 대로변 북동상업지 2010㎡ 병원 오피스텔등 적합 52억
- 충정로 5가 도로점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최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대지 155㎡ 건물 263㎡ 은행 1억4천 매도 3억7천
- 충정로5가 요지 대지 261㎡ 5층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 북구 문흥동 대지 171㎡ 5층 상가주택 491㎡ 임대생활적합 7억6천
- 양동시정 대로변 땅 2902㎡ 주상복합개발적합 은행 30억 매도 67억
- 순천만 판선 대대동 땅 332㎡ 건평 285㎡ 방 8 년매출 1억선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종용 11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천, 농성초교앞문앞

2층주택 사정상 급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 급매 - 6200만원
- H. 010-6838-1230

최고급 전원주택(별장)

▶정남진 장충, 환상적인 해변의 드라이브코스에 해수욕장, 리조트, 선착장이 어울린 최고급 유희용 주택

토지 4,900㎡ / 건물 238㎡ → 매가 7억 2천

캐나다산 수입목(100%) 목조건물로 최고급 수입 원자재 시공, 조망권 최고! 광주에서 45분!
◎ 남해안에 터이상 고급주택은 없습니다!!

투자만점 ▶화순 도곡면 원화리 도곡천 인근
계획관리 계획관리지역 전 및 임야 29,198㎡
지역 → 매가 9억 8천 투자최고!!

H. 010-4226-7722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증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가 대박창출!!

재용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남산단2번로 49(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2-953-2995 Fax. 0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